

경주서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

2016.09.12.

경북 경주에서 12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해상과 내륙을 통틀어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 32분께 경북 경주시
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이번 지진 규모 5.8은 기상청 계기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로
1980년 1월 8일 평안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3) 기록을 경신했다.
남한에서는 1978년 충남 보은군 속리산에서 발생한 지진과
2004년 경북 울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이 최고 기록이었다.
진앙지 주변 시민들은 지진이 일어나자 고층의 아파트와 주택 건물을 벗어나
긴급 대피했다.

이날 지진으로 진앙 주변 지역은 물론 부산 대구를 비롯한 인근 광역시에서도
지진이 감지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특히 울산에서는 LNG복합화력발전소 4호기도 가동이 중단됐다.

지진의 여파로 신경주역과 울산역 사이를 지나는 KTX 일부 열차가 긴급 정지했고,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도 지진 발생 직후부터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국민안전처에는 이날 1만건이 넘는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 지진] 건물 부서지고 도로 금가고...39명 크고 작은 부상

2017.11.15.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강진이 일어나 건물 곳곳이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났다. 이는 지난해 9월 12일 인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2개월 만에 발생한 강진이다.

포항에서는 이후 수차례 여진이 이어졌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오후 7시 현재 도내에서 포항 지진으로 중상 2명, 경상 3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민 이소영(44·여)씨는 "지진이 난 이후에는 무서워서 차 안에서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71건 발생했다.

건물 27곳이 금이 가거나 일부 부서졌고 도로 2곳이 금이 가 차 통행을 금지했다. 상수도관 40개소가 파손했고 공장 1곳이 부서졌으며 KTX 포항역사 천장이 일부 무너졌다. 포항공대 등 4곳은 정전이 발생해 복구가 한창이고 주택과 상가 10여 곳에서 작은 불이 났다.



휴일 새벽 포항 뒤흔든 4.6 지진...22명 부상

2018.2.11.

11일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북서쪽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혔다. 규모 4.6에 이어 포항시 북구 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2.1~2.4의 여진이 9차례 잇따랐다.

이번 지진으로 22명이 부상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흥해실내체육관에 머물던 A씨(62·여)등 2명은 지진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포항공대 식당에 있던 20대 남성이 대피 과정에서 머리가 1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진 부상자 22명 중 20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2명은 입원 중이다.

지진 당시 약 10초간 이어진 심한 진동으로, 포항시 북구 7층 상가의 건물에서 외벽이 떨어져 1층 사무실 대형 유리창과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됐다.

또 두호동의 한 가게 입구 유리창이 파손되고 장성동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 20여 건이 포항시에 접수됐다.



대만 화롄 규모 6.0 지진...6명 사망 · 254명 부상

2018.2.7.

대만 동부 화롄에서 발생한 규모 6.0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7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앙재해응급대응센터의 이날 오후 5시30분(현지시간) 현재 피해 집계 결과 전날 밤 지진으로 인해 모두 6명이 숨지고 254명이 부상했으며 88명이 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붕괴한 건물에서 집중됐다. 현재 화롄 시내에서 11층짜리 마샬호텔과 12층짜리 원먼추이디빌딩, 6층짜리 바이진왕싱 빌딩, 9층짜리 우쥬우쑤 빌딩 4채가 무너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다.

현재 대부분의 실종자는 원먼추이디 빌딩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색구조 작업을 집중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만 5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40도가량 기울어진 이 빌딩은 시간당 5cm의 속도로 계속 경사가 가팔라지고 있다. 현장에는 강한 비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수색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지에서는 모두 1천900가구가 정전됐다가 1천700가구가 복구된 상태다. 3만 5000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다.



中 원난·칭하이 규모 6~7 지진..."사망 3명·이재민 8만여명"

2021.5.22.

중국 남서부 원난성과 북서부 칭하이성에서 밤사이 규모 6~7 수준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중국지진대망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난성 양비현에서 전날 밤 9시 48분(현지시간)께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을 전후로 양비현에서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22일 오전 8시 30분까지 30여 차례 지진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규모 6.0 이상이 1차례 있었고 규모 5.0~5.9도 3차례에 달했다.

원난성 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까지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민은 8만1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밖에 가옥이 무너지고 지붕 기와가 떨어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산사태와 낙석 등으로 일부 도로 운행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난성 지진으로 부서진 벽



지진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일본 수도권에서 규모 6.1 지진...부상자 속출

2021.10.08.

일본 수도 도쿄에 인접한 수도권 지바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관이 파열되고 열차가 탈선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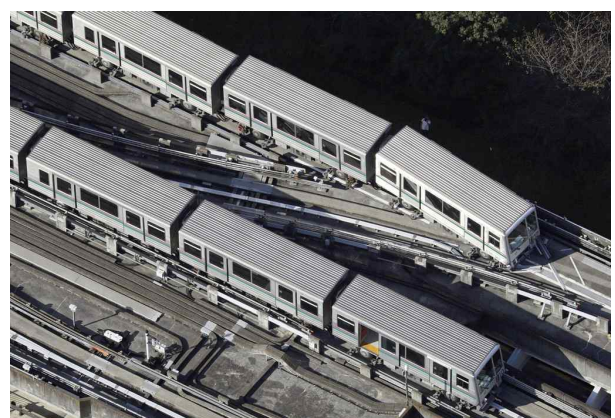
8일(현지시간)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밤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에서 부상자 24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하철과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서 귀가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도쿄 메구로구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돼 맨홀에서 물이 쏟아졌다. 다이토구나 오타구에서는 건물 외벽이 훼손되고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면서 사람이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사이타마현의 한 원유 처리 시설에서는 불이 났다.

일본 기상청의 자체 등급인 진도 5강은 사람이 지지물을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다. 실내에서는 천장의 식기류나 책장의 책이 많이 떨어지고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다. 도쿄 23구 내에서 진도 5강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약 10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진으로 인해 부서진 수도관을 수리하고 있다.



지진으로 탈선한 열차

